

교수일반분과/어문학/01/

아일랜드의 생태학적인 자연과 예이츠의 시
(Irish Ecologic Nature in Yeats's Poem)

-기독교 세계관 발표용 초록-

황 인 경 (성균관 대학교)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시인인 예이츠의 시를 읽어 내려가면 그의 시에서 자연의 향기가 넘쳐나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지금의 아일랜드 사람들은 예이츠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자연을 그리고 노래하였던 슬라이고(Sligo)의 있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생태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 예이츠의 시에서 나타난 자연의 묘사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생태학적인 비평가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예이츠가 읊조리고 있었던 자연물-나무, 숲 속, 이니스프리의 호수, 킬케니의 숲은 우리들에게 예이츠의 시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식물들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생태보존의 힘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생태보존을 위해서 아일랜드 정부는 꾸준히 예이츠가 노래하였던 시골길의 소재나 이니스프리의 호수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시의 배경이 되었던 자연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보존은 예이츠라는 시인을 통해서 바라본 자연의 묘사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노력은 바로 복락원의 이미지를 찾고자 하였던 노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이어야 할 것이면, 이러한 복락원의 파괴는 이성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죄에 대한 결과물과 대조를 이뤄나가면서 시의 언어가 구사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한 예이츠의 시는 *Easter 1916*의 시에 나온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Hearts with one purpose alone
Through summer and winter seem
Enchanted to a stone
To trouble the living stream.
The horse that comes from the road,
The rider, the birds that range
From cloud to tumbling cloud,
Minute by minute they change;
A shadow of cloud on the stream

Changes minute by minute;
A horse-hoof slides on the brim,
And a horse plashes within it;
The long-legged moor-hens dive,
And hens to moor-clocks call;
Minute by minute they live:
The stone's in the midst of all.

Too long a sacrifice
Can make a stone of the heart.
O when may it suffice?
That is Heaven's part, our part
To murmur name upon name,

.

What is it but night all?
No, no, not night but death;
Was it needless death after all?
For England may keep faith
For all that is done and said.
We know their dream; enough To now they dreamed and are dead;
And what if excess of love

(3rd~4rd Stanza, *Easter 1916*)

자연이라는 소재가 내포된 그의 시는 아일랜드를 생태학적으로 보존하고 싶었던 것은 아일랜드의 나라를 지켜내 보고 싶었던 일종의 저항이 담겨져 있는 일종의 'lyric poetry'라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생소한 자연이 담겨져 있는 이국적인 나라, 아일랜드이지만, 자연이라는 친소재에서 얻어낸 사회적인 공감대는 지구촌의 화합과 평화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표현을 자아내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물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그윽한 저항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려내는 묘사는 어느 유명한 화가보다 더 멋진 묘사로 그려져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향긋한 자연의 풍광을 느낄 수 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연을 묘사하는 예이츠는 그 만큼 아일랜드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날아다니는 파리조차도 자연의 일부로서 묘사하고 있다. *Long-legged Fly*의 시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생태계의 파괴는 이 긴 다리를 뻗어나가는 파리는 제목에서부터 기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ur master Caesar is in the tent/Where the maps are spread,/His eyes fixed upon nothing/ A hand under his head./ Like a long-legged fly upon the stream/His mind moves upon silence/ (1st Stanza, *Long-legged Fly*)

왜 긴 다리의 파리일까라고 독자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고 넘어갈 자연의 생태계의 체계의 일부분인 날아다니는 파리조차도 그의 시에서는 제국주의의 속성을 풍자한 재미있는 알레고리를 형성해 내고 있다. 자연을 벗삼아 생태학적인 묘사는 아일랜드의 자연을 지키려는 것으로서 영국제국주의 정부에 맞서는 저항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위의 시구에서 Caesar는 살인자로도 해석되고 있으며, Caesar는 로마 제국주의의 상징적인 의미로 묘사되고 있으며, 영국제국주의자로도 대체되어 해석되고 있다. 천막(tent)라는 이미지는 남의 땅을 차지하려는 전쟁의 야전캠프임을 뜻하고 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확장을 위해서 지도(map)은 항상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도(map)의 의미는 찰스 다윈의 유전자지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의 원리대로 약소국의 하나둘씩 침범해 나가려는 의도는 이러한 살인자들의 의도에 의해 토양의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파리가 닿는 곳은 언제나 썩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성에 사로 잡힌 Caesar의 눈은 아무 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사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2장 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Hebrew 12:2)

히브리서 12장 2절의 내용과 달리 Caesar의 눈은 어디에도 맞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무말도 할 수 없고, His mind moves upon his silence"로 일관된 침묵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좌에 도전하는 행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head(이성)으로만 세계를 다스리려는 의도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초점이 모여지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가 없음을 의미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히브리서 11장 1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비난한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는 선악과에 대한 궁금증을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은 바로 파리가 인간을 유혹하는 모습과도

유사하다.

파리가 궁금해서 다리를 뺏어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상차림의 음식 앞에서 정말로 맛이 있는 궁금증의 해소를 위해 간을 보다가 오히려 음식을 상하게 하는 모습은 이성으로 인해 썩어가는 생태계의 도태된 모습이기도 하다. 권좌에 계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질서를 파괴하려는 파리는 다리를 뺏어 살짝 신선한 음식을 닿는 순간 그 음식이 썩어서 못 먹게 되는 인간 최악의 온상을 뜻하고 있는 모습이다. Long-legged Fly와 유사하게 묘사된 Easter 1916, 의 long-legged moor-hens의 모습과 moor-cocks는 moor-fowl로 영국산의 붉은 너조를 뜻하고 있다. moor라는 단어의 의미는 ‘황무지’, ‘광야’ 등의 의미로 옥토를 황무지로 만드는 파괴력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다. 영국의 제국주의가 에덴의 동산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생태계 파괴의 온상지를 뜻하고 있음을 elicit power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Caesar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러하듯, 제국주의의 상징인 Caesar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묵묵히 기다려야 된다는 암묵적인 지시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태계의 파괴의 온상이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 앞에서 맞서나가는 에이츠는 하나님을 향한 모습-hearts-은 항상 일관되게 하나로 묶어서 그려 나가고 있다. 각각의 인간들의 heart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비추지고 있다. 고난에 사로잡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은 하나로 모아져서 살아있는 계곡, 즉 물살이 심한 인세의 고난 속에도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Hearts with one purpose alone
Through summer and winter seem
Enchanted to a stone

그래서 단단한 이성(stone, 고난)등은 우리의 인생 한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고난과 맞서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 한 것이다.

Minute by minute they live:
The stone's in the midst of all.

그러나, 이러한 영국제국주의와 맞서 싸워나가는 동안에 아일랜드는 독일이 일으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You say that we should still the land
till Germany's overcome;
But who is ther to argue that

Now Pearse is deal and dumb?
And is their logic to outweigh
. . . (2nd Stanza, *Sixteen Dead Men*)

이러한 시의 소재는 아일랜드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화 유물론의 비평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평이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아일랜드의 종교적인 지도자인 St Patrick에 대한 인물을 빼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St. Patrick was born in the north of Birtain around the end of the fourth century (some scholars give his date of birth as 387 AD0 with the Roman nane, Patricius. But those were the dying days of roman rule in Britain, and the coastal defences had crumbled. Irish raiders plagued the western shore. When he was 16 years old, Patrick was kidnapped and taken to Ireland as a slave, possibly in one of the great raids led by Niall of the Nine Hostages. For six years, Patrick toiled as a herdsman in the north of Ireland. He slept in the cold and often suffered from hunger pangs. In his misery, the formerly unreligious Patric turned to God, praying many times a day. Then one night, he heard the voice of God telling him that a ship wailed to take him home. Patrick escaped from his master and journeyed 20 miles to reach the ship. . . . When he resided , Patrick heard voice of God once more, telling him to return to Ireland to spread his word. (26~28, McChllough, *A Pocket History of Ireland*)

이렇듯, St. Patrick에 대한 인물을 논하지 않고서는 아일랜드를 논할 수 없듯이, 예이츠의 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

The Stolen Child란 시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here dips the rocky highland
Of Sleuth Wood in the lake,
There lies a leafy island
Where flapping herons wake
The derowsy water-rats;
There we've hid our feary vats,
Full of berries

And of reddest stolen cherries.

Come away, O human Child!

To the waters and the wild

With a faery, hand in hand,

For the world's more full of weeping than you can understand. (1st stanza, The Stolen Child)

아일랜드의 전래 동화에서는 빠져서는 안되는 잃어버린 어린이들이란 얘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St. Patrick을 어렸을 때 아일랜드인들이 그를 16살 때 유괴하여 그를 노예로 삼은 이야기가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음을 바라볼 때, 그 당시의 아일랜드인들이 그를 바라보는 입장을 그려나간 것임을 알 수 있다. 해안가에서 그를 유괴하여 온갖 고난을 당한 그는 마치 모세와도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재현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의 제자로 묘사되어 있다.

Away with us he's going

The solemn-eyed;

He'll hear no more the lowing

Of the calves on the warm hillside

Or the kettle on the hob

Sing peace into his breast,

Or see the brown mice bob

Round and round the oatmeal-chest. (4th Stanza, *The Stolen Child*)

그는 거룩한 눈으로 아일랜드를 바라보고 그는 낮고 천한 소리를 듣는 뿔과리 같은 소리 보다는 우리에게 심금을 울려주고, 갈색 쥐를 가볍게 물리치고는 우리에게 소중한 일용할 양식을 주는 성인 군자로 바뀌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재앙인 흑사병조차도 물리치고, (혹은 아일랜드인들이 흑사병을 몰고 왔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슬픔과 고난을 물리치고 요정과 같은 마법의 손으로 황폐한 이 땅을 옥토로 만들어준 St. Patrick은 아일랜드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로 추앙 받고 있는 것이다.

By the time Patrick wrote his Confession, his church was well established.

Patrick appointed many bishops in Ireland, and they continued to lead the church after his death. Within a few centuries of his mission, most of Ireland had converted to Christianity, although many pagan traditions still survived. In the twelfth century, St. Patrick's remains were 'discovered' at Lough Derg,

where Patrick had reportedly fasted in order to expel demons. With its unique focus on penitence, the site remains an important and popular pilgrimage destination. (*Ibid.*, p.29)

이러한 St. Patrick을 통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아일랜드 땅에게 생태계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Patrick was not the first Christian to venture to Ireland. In fact, many small Christian settlements already existed, and the Pope had already sent one bishop to try and organise the Irish church. But the arrival of St. Patrick heralded a great change in the island. According to legend, when Patrick came to Ireland he drove out all the snakes. In all likelihood, Ireland never had any snakes, but the story is probably metaphorical. The snakes may have represented the druids, whose pagan beliefs connected them with Satan, the serpent in the Bible's book of Genesis. (*Ibid.*, p.28)

이러한 St. Patrick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가는 과정의 모습이 예이츠의 시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역사와 신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이츠 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듯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신화와 이교도의 모습을 잘 조화롭게 그려나가면서 St. Patrick의 모습을 예이츠의 시에 묘사되고 있는 것은 전통과 기독교의 조화를 통해서 자연을 회복 시키려는 그의 시는 생태학적인 문학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인용된 그의 시를 바라보면 heart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어서 추상명사인 heart를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시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heard의 과거형의 어미를 생각한 heart를 생각하면서부터 생태계의 회복과 복락원의 모습을 그려나간 시들이 자연의 모습을 그려나간 시는 다음과 같다.

Shy one, shy one,
Shy one of my heart,
She moves in the firelight
Pensively apart.

She carries in the dishes,
And lays them in a row.
To an isle in the water
With her would I go.

She carries in the candles,

And lights the curtained room,
Shy in the doorway
And shy in the gloom;

And shy as a rabbit,
Helpful and shy,
To an isle in the water
With her would I fly. (*To an Isle in the Water*)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만찬을 위해 접시를 준비하고 물가에 가서 세례를 받을 준비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다. 회막의 장소에서 촛불을 준비하고 우리는 어둠에 부끄러워야 하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상징성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 훨훨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 속에서 나타난 상징의 의미는 바로 예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생태계가 회복된 에덴의 동산을 연상케하는 사랑의 회복과 구속의 역사의 자유함, 곧 제국주의국가로부터의 독립을 연상케하는 자유,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예이츠의 시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heart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글귀로 해석해보면 바람직 할 것이다.

검색어: 생태문학, 자연, 자유, 제국주의, 예이츠,

[참고문헌]

NIV. 한영 스테디 성경, 개혁 개정판, 서울:생명의 말씀사,2006.

Michale, B. Yeats. *The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London:Wordsworth Poetry Libaray,2000.

McCullough, Joseph. *A Pocket History of Ireland*, Dublin:Gillbooks,